

NCT 위시 “NCT답다는 댓글 기억에 남아요”

韓·日 동시 데뷔 첫 활동 종료
한국서 초동 28만장·음방 1위
“엔시티 이름에 대한 책임감”
“활동 마치고 자체 리뷰 회의”
“가장 큰 목표는 단독 콘서트”

그룹 ‘엔시티(NCT)’의 무한확장 장르를 알리는 마지막 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 활동. 한국인 보다 일본인 멤버가 더 많은 K팝 그룹. SM엔터테인먼트 최초 오디션 출신...엔시티 위시(NCT WISH)를 가리키는 말은 수없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SM의 한 줄기 뿌리가 된 엔시티의 새로운 서브 그룹이라는 점이다. ‘위시 포 어 워시(WISH for Our WISH)’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음악과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소원과 꿈을 응원하며 함께 이루어 가자는 포부를 지녔다. 한국 국적의 시은(21)·재희(18), 일본 국적의 리쿠(20)·유우시(19)·료(16)·사쿠야(16)가 멤버다. 평균 나이 18.3세인 이들은 소년미를 추구한다. 청량한 콘셉트로 이지 리스닝 스타일의 곡을 중점으로 한다.

지난해 일본 9개 도시 24회에 걸쳐 프리 데뷔 투어를 하면서 인기를 실감했다. 정식 데뷔 무대는 지난 2월2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에스엠타운 라이브 2024 에스엠씨유 팰리스 @도쿄(SMTOWN LIVE 2024 SMCU PALACE @TOKYO)’였다. 이곳에서 타이틀 곡 ‘위시’ 무대를 최초로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 동시 데뷔를 알렸다.

도쿄돔은 약 5만5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으로 아티스트의 인기 척도가 되는 곳이다. 엔시티 위시는 이곳에서 약 10만명의 관객 앞에서 데뷔 무대를 치렀다. 이곳의 위상을 아는 일본인 멤버들에게는 더욱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데뷔 무대를 도쿄돔에서 꾸렸던 게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우리의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료)

“엄청 큰 무대였어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해도 되나 싶었는데 멤버들과 함께 즐겁게 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디.”(유우시)

엔시티 위시는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활동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3주간의 음악방송 활동을 하며 위시 리스트를 하나씩 채워나갔다. “2024 최고의 신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던 이들은 양국 앨범 선주문량 37만장, 한국 판매 버전 초동(발매 후 첫 일주일 판매량) 28만장을 돌파하며 올해 데뷔한 신인 중 1위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활동 8일 만에 케이팝 방송 음악 프로그램 ‘더 쇼’와 ‘쇼챔피언’에서 2관왕을 했다.

신인인 만큼 처음 마주하는 것이 많아 설레면서도 어려움이 따르는 활동이었다. 유우시는 “막상 데뷔를 하니까 앞에 있는 과제들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카메라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다. 음악방송마다 카메라가 달라서 시선 처리가 어려웠다”

고 털어놨다. 료는 “타국 활동이 처음이다 보니 팬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웠다.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다”면서도 “3주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늘었다”고 했다. 사쿠야는 “막내라서 그런지 형들이 애교를 시킨다. 시간이 남아서 매워줘야 할 때 미션에 실패하고 기회를 달라고 할 때 애교를 한다”고 귀여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팬들과 가장 가까워서 소통할 수 있는 팬사인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시은은 “낮도 가졌는데 팬들을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긴장도 풀리고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았다. 에너지를 많이 얻어 가는 느낌”이라며 “엔시티 위시 때문에 처음 팬사인회에 왔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가장 신기했다”고 밝혔다. 리쿠는 “전 아직도 긴장하고 낯가린다. 그래도 팬들과 만나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

음악방송 1위 역시 팬들이 만들어 준 성과라고 여기고 있다. 료는 “그때 팬분들의 사랑을 다시 느꼈다. 수직 같은 걸 못 봐서 사랑을 실감하는 게 어려웠는데 1등 하나가 실감이 났다”며 “1등에 걸맞은 그룹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희는 “깜짝 놀랐다. 너무 놀란 상태라 굳어있었는데 폭죽 소리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팬들이 축하한다고 해주신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며 “유우시 형이 살짝 위험했다. 눈물이 그렇게 많았다”고 밝혔다.

음반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 50만장을 육박한다. 재희는 “데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희의 매력을 뽐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화이팅하겠다”고 했다. 사쿠야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한 일인 것 같다. 다음 앨범은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엔시티 위시의 성공적인 데뷔에는 가수 보아(37)가 뒤에 있었다. 보아는 SM 선배 가수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총괄 프로듀서 역할을 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멤버들 자리를 지킨 이력이 있는 맞춤형 프로듀서다. 엔시티 위시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ENA 오디션 ‘엔시티 유니버스 : 라스타트(NCT Universe : LASTART)’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했다. 한국 데뷔 쇼케이스 무대에도 직접 올라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위시의 아이콘이 되고자 한다. 팀의 정체성이 어울리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멘토로서 함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쿄돔에서 무대를 하기 전에 저희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보아 프로듀서님께서 “그냥 무대를 즐겨라”고 하신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덕분에 멤버들 모두 긴장이 풀리고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보아 프로듀서님께



손 편지를 한 번 썼었는데, 요즘은 문자도 가끔 해요. 엔시티 위시를 애정 있게 봐주셔서 편하게 같이 지내고 있어요. 방송 마무리 잘 했다고 먼저 피드백을 주세요.”(유우시)

엔시티를 비롯한 SM 식구들은 한마음으로 막내 그룹의 데뷔 활동을 응원했다. “보아 프로듀서님은 첫 사진녹화 때 와주시고, 엔시티 도영(28) 선배님은 ‘음악중심’ 녹화 때 직접 치킨을 사서 와주셨어요. 엔시티 드림 선배님은 간식 같은 것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아티스트 선배님도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재희)

그렇수록 엔시티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진다. 재희는 “저희가 처음 ‘엔카운트다운’에 출연했을 때 엔시티 태용(28) 선배님이 현장에 계셨다. 무대에서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엔시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이 있으면서 좋았다”고 했다. 사쿠야는 “엔시티 네이션 콘서트 때 오프닝 게스트로 무대에 섰다. 그때 우리가 오프닝 잘 해서 형들 무대를 잘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실전 경험을 쌓아가며 성장 속도는 빨라졌다. 한 주씩 음악방송을 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고, 힘을 빼는 방법을 깨우쳤다. 방송을 마칠 때마다 멤버들끼리 자체적으로 리뷰를 할 것이 큰 도움이 됐다. “1주 차에는 준비한 걸 제대로 잘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컸던 나머지 무대 위에서 평소보다 굳어있었어요. 2주 차 때는 즐기자고 했죠. 활동을 마치고는 음악방송을 보고 리뷰를 했어요. 한 명씩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무대와 못했다고 생각하는 무대에 대한 리뷰를 써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시은)

팬들의 반응도 꼼꼼히 챙겨 봤다. 시은은 “모니터링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 직캠, 폴캠도 무조건 본다”며 “댓글에 ‘엔시티답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춤 엔시티처럼 춘다’는 말도 뿌듯했다”고 밝혔다. 리쿠는 “여섯명 다 미쳤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재희는 “첫 한국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즐겁게 댄서 한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다. 다음에 더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무대를 때 저희 팀의 모토는 ‘가장 열심히 가장 즐겁게 하자’예요. 다 같이 틀려도 괜찮

으니까 즐기자는 마인드죠. 여차피 연습 많이 했으니가 무대 위에선 즐기는데 팬들도 우리를 보고 즐거워주는 것 같아요.”(시은)

언어는 달라도 같은 꿈을 가진 이들은 서로 이해하면서 유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시은은 “웃겼던 일이 있었다”며 “막내 료와 사쿠야랑 셋이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둘은 게임하고 저는 휴대폰을 하고 있던 상황이였다. 활동이 막 끝났을 때였는데 ‘형 힘들지 않냐. 짜증 나거나 화나는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해’라고 하더라. 고맙웠다”고 했다. 사쿠야는 “시은 형이 평소에도 많이 챙겨준다. 형도 많이 힘들 텐데 다 챙겨주는 모습이 멋있었다”며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커피랑 빵을 사주겠다”고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엔시티 위시의 위시 리스트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더 크고 높은 목표다. 시은은 “엔시티 네이션 사전 무대를 한 그때의 기억이 깊게 남아있다.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리쿠는 “데뷔 무대를 했던 도쿄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했다. 재희는 “사이니 선배님 콘서트도 도쿄돔에서 했다. 세 분이서 도쿄돔을 꼭 채우는 걸 보고 나중에 언젠가 위시 6명도 큰 무대를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쇼케이스 때는 음악방송 1위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1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활동 계획도 세우고 있다. 새 앨범 녹음도 한창이다. 재희는 “위시’ 때 녹음이 부족하다고 느낀 게 많아서 다음 곡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을 받겠다. 어려운 노래라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에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프리 데뷔 투어를 돌았는데 지금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때의 기억을 갖고 조금 더 팬들과 소통을 하겠다. 일본과 한국 팬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도 조금 있기에 때문에 발전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쿠야는 “한국 활동 방송이나 콘테츠를 찍을 때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잘하고 싶다”며 양국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뉴시스



‘그래미 3관왕’ 엔지니어
영인, 프로듀서 데뷔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인 오디오 엔지니어 데이비드 ‘영인’ 김(David ‘YUNGIN’ Kim·37·김영인)이 프로듀서로 데뷔한다.

7일 소속사 AIM 코리아(KOREA)에 따르면, 영인은 오는 9일 오후 6시 음원플랫폼에 데뷔 싱글 ‘노 로우키(No Lowkey)’를 발매한다.

‘노 로우키’는 영인의 역동적인 프로덕션 스타일을 담고 있다. 미국 프로듀서 차 차 말론(Cha Cha Malone)이 프로듀싱에 함께 했다. 래퍼 제시와 카모가 피쳐링했다.

영인은 “프로듀서로 데뷔를 앞두고 설레면서도 걱정됐으나 제시와 카모의 버스(VERSE)를 듣는 순간 모든 걱정을 떨치고 재미있게 작업했다”고 말했다.

제시는 “영인과의 작업은 흡입을 데가 없었다. 지금까지 경험한 세션 중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으며 다음 앨범에도 꼭함께 하고 싶다”고, 카모는 “비트를 듣는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영인의 디렉팅에 맡기고 재미있게 작업했고 어릴 때부터 팬이었던 제시님과 한 트랙에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전했다.

영인은 7월께 정규 1집 ‘디드 유 노우(Did You Know)’를 발매한다. 자신 삶의 여정을 여러 곡을 통해 표현한다고 예고했다. 박재범, 폴 블랑코(Paul Blanco), 장모, 신스(SINCE), 소코도모, 로스, 돈밀스, 카드(Kard)의 BM, 피에치원(pH-1), 저스티스, 루피 등 화려한 피쳐링 라인업을 자랑한다.

서울에서 태어나 네 살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이민을 간 영인은 할리우드 유명 음악학교 ‘뮤지션스 인스티튜트(MI)’에서 공부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캔디라 라마, 나스, 히트-보이(Hit-boy) 등과 작업한 음향 엔지니어다.



에스파, NHK 음방
‘베뉴 101’ 출연 나서

글로벌 그룹 ‘에스파(aespa)’가 일본 인기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이날 오후 11시 생방송하는 일본 NHK의 음악 방송 ‘베뉴(Venue) 101’ 무대에 올라 동원 인기곡 ‘드라마(Drama)’를 불렀다. 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11월 발매된 에스파 네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 곡 ‘드라마’는 공격적인 드럼 소스와 세련된 신스 베이스가 돋보이는 힙합 댄스다. 퍼포먼스 역시 모든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담은 가사에 맞춘 강렬한 포인트 동작들로 구성된 에스파 표 ‘쇼 밧’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다.

더불어 발매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넥스트 레벨(Next Level)’, ‘새비지(Savage)’, ‘스파이스(Spicy)’에 이어 에스파의 ‘메가 히트곡’ 탄생을 알리고 있다.

제이홉 ‘뉴런’, 英 싱글차트 64위...아일릿 ‘마그네틱’ 80위

아일릿, K팝 그룹 데뷔곡 최초 진입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정호석)이 군백기에도 스페셜 앨범 ‘호프 온 더 스트리트(HOPE ON THE STREET) VOL.1’으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호성적을 거뒀다.

5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제이홉이 지난달 29일 발매한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은 이번 주 오피셜 앨범 톱100(5~11위)에 38위로 진입했다. 해당 차트 자체 최고 성적이다. 지난 2022년 발매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67위)에 이어 이 차트에 두 번째로 진입했다. 팀 동료인 슈가와 함께 해당 차트 K팝 솔로 최다 진입이다.

이와 함께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은 ‘앨범 다운로드 차트’(2위), ‘앨범 세일즈 차트’(5위), ‘피지컬 앨범 차트’(7위), ‘스튜디오 앨범 차트’(8위) 등 여러 차트 상위권에 포진했

다.

또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의 타이틀 곡 ‘뉴런(NEURON)(with 개코, 윤미래)’은 이번 주 오피셜 싱글 톱100에 64위로 들어왔다.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37위), ‘모어(MORE)’(70위),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82위)에 이어 해당 차트에 네 곡을 올렸다.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은 제이홉의 예술적 뿌리인 ‘스트리트 댄스(street dance)’를 소재로 그의 정체성과 초심을 담은 앨범이다. ‘뉴런’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이와 별개로 핑크퐁 ‘아기상어(Baby Shark)’는 이번 주 오피셜 싱글 톱100 차트에서 66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 머문 기간을 총 89주로 늘렸다.

특히 하이브(HYBE)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의 데뷔 음반인 미니 1집 ‘슈퍼 리얼 미(SUPER REAL ME)’ 타이틀 곡 ‘마그네틱(Magnetic)’이 이번 주 싱글 톱 100 80위로 진입했다.

K팝 그룹 데뷔곡 최초의 성과다. 아울러 아일릿은 데뷔한지 11일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이 차트 ‘최단기 입성 K-팝 아티스트’라는 이칭표를 세웠다.

빌리프랩은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음악 차트로 꼽힌다. 아일릿이 아직 해외 현지 활동이나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는 K-팝 신예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과는 숫자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전체 K팝 걸그룹을 따져도 오피셜 싱글차트에 이름을 올린 팀은 극히 드물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뉴진스’ ‘피프티 피프티’가 해당 차



트에 진입했고 아일릿이 다섯 번째다.